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온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걸 접해볼 수 없었다. 강철은 두드러 맞으면서 단련된다. 나는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단련' 되었다고 생각한다.

긴급조치 시대의 혹독한 경험들이 술한 얼뜨기 시골 청년들을 민주주의 투사로 단련시켜 준 것 같다.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그러한 고뇌와 지독한 경험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너그러워졌으리라고 생각한다. 80년 중반 이후 사회 변혁론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려 했던 세대들과 달리 우리들 긴급조치 세대들은 그렇게 모두 어설피게, 수공업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이 인생 전체를 걸고 한 고민들이었기에 그 뒤에 어느 분야로 나갔든지 그때의 올곧은 단심과 원초적인 정의감은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동시대 대중들을 지도(?)하는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고, 이름도 명예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저 작은 개울로 시작하였으나 마침내 모여서 큰 강물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 가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실 긴급조치 시대의 선배님들께, 이미 유명을 달리 하신 제정구, 정문화, 김병곤, 이범영 선배님 등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 농민, 빈민운동의 선구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이 글을 바친다.

## 여명의 '79년, 서울대 91 데모



김 중 채\_ 서울대 사회학과 76학번.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베를린 훔볼트대학 수학,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현)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던 날

그 날 나는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다. 9동 하 독거 9방, 내가 읽고 있던 책은 강제언의 <조선 근대사연구(일어본)>였는데,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쏘아 죽인 후, “나는 그가 동양평화의 공적이어서 쏘았노라”고 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이라는 부분을 읽고 있었다.

10월 27일 아침 영등포 구치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다. 교도관들은 보통 회색의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날은 국방색의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침 11시경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보통 1주일에 두 번 오시고 이번 주에는 벌써 두 번 다녀가셨는데 또 오신 것이다. 웬일일까? 하지만 하루 한 번 운동할 때나 면회 때가 아니면 좁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 나로서는 일단 좋은 일이다. 10분 간의 면회시간 동안 어머니와 누나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고, 나는 팔굽혀펴기를 안에서 매일 백 번씩 하므로 건강이 좋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입회중인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받아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쪽지를 하나 펼쳐서 칸막이 유리창으로 보여주셨다. '박대통령 암살' 그 여섯 글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눈짓으로 꺾였고 어머니 손은 곧 만세의 손짓처럼 되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하느라 동작은 작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호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

9동 하 독거 9방, 내 방으로 오려면 복도에서 6호 앞을 지나가야 한다. 당시 학생들은 8월 15일 특사로 대부분 나가고 독방에는 6호에 홍윤기(서울대 75, 추가 기소, 현 동국대 교수), 9호에 나, 12호에 이 범(고대 77, 현 백산서당), 15호에 윤언균(서울대 76, 현 학술진흥재단), 18호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희대생뿐이었다. 6호의 홍윤기 형에게 재빨리 소식을 전했다. 박통 사망 그의 눈이 화등처럼 커졌다.

저녁을 먹고 나서 7시쯤, 긴조사범끼리 약속된 통방 시간이다. 변기통 뒤로 나와 우리는 매일 하던 통방을 했다. 독방들 사이에는 잠범들이 서너 명씩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섞어서 통방을 했다. “Hey, the death of president!” “Who? Jimmy Carter?”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 “No, Mr. Park!”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교도소 내 특별방송이 있었다. “모두 일어섯!” 하더니 특별뉴스로 대통령이 유고라는 소식만 전했다. 우리는 하루 전에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석방되고 공소장은 받았지만 면소판결을 받았다. 친구들과 함께 사복을 입고 그냥 이름만 쪽 부르더니 “피고인을 면소한다, 땅땅땅.”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후 진술도 못했다. 유신헌법 책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진술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 79년 9월 11일 서울대 데모와 ‘무림’ 조직

이 날 데모는 그 해 첫 시위였다. 1학기에 한 번 하려 했던 시위는 불발이었다. 나는 500명 정도가 모이기까지 최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끌려가는 역할이었다. 서울대 사회대 5동 앞 게시판 위에서 호각을 불면서 유인물을 뿌리던 나를 형사가 잡으러 올라왔다. 우리는 작년에 주동자 한 사람이 건물 난간에서 형사를 피하려다 3분도 안 되어 붙잡히고 학생들이 모이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몰려든 경험이 있어서, 도망치지 않고 싸우기로 했다(당시 경찰은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었다. 평소에 주먹 한번 쓰지 못하던 나였지만 그날은 내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 그와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게시판 밑으로 둘 다 굴러 떨어졌는데 동료 학생들의 도움으로 내 몸은 풀려났다. 다시 스크럼을 짜고 도서관 밑 통로를 통과해서 학생

회관 쪽으로 몰려가는데 거기 상담실 직원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몰러 가라!” 학생들이 따라서 외쳤다. 그와 나는 맞붙었으나 그는 무술유단자였다. 허리를 붙잡힌 채 학생회관 쪽 도서관 계단을 끌려 내려와 본부 건물로 잡혀 들어갔다. 덕분에 5백 명이 모였고 학생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관악경찰서에서 들으니 2천 명이 모일 때까지 제2, 제3의 주동자가 하얀 종이 유인물을 꽃잎처럼 뿌리며 나타났다 끌려가기를 반복하자 학생들이 폭발했다고 한다. 1학기 내 내 터뜨리지 못했던 것을 분풀이나 하는 듯이… 나사회 4, 현 성공회대 외래교수, 신상덕(사회4, 현 대우건설), 김낙년(경제 4, 현 동국대), 김진태(외교 4, 현 열린우리당), 김준희(법 4, 현 용진 닷컴)가 그 날의 유인물 3종(‘민족 민주 선언’, ‘경제 민주화 선언’, ‘학원 민주화 선언’)을 준비하였다.

관악 경찰서에서 1주일 간 조사받고 1주일을 유치장에서 보낸 뒤 9월 25일 영등포 구치소로 구속 송치되었다. 10월 첫 주에 검사 취조를 받으러 검찰청에 갔는데 김용호(철학 4, 현 성공회대)의 얼굴이 보였다. 우리가 제1팀(사회대), 그는 제2팀(인문대)의 팀장이었다. 그와 나는 팀장이었으므로 서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치고 1주일 내지 열흘 후에 제 2팀이 친다. 그 전에 ‘지하신문’ 이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친 후 2, 3일 후에 다시 지하신문이 나온다. ‘지하신문’은 한철희(국문 4, 현 돌베개 출판사)가 팀장이었다. 그러나 팀원들이 누구인지는 서로 몰랐다. 제 2팀에 윤언균(불문 4, 현 학술진흥재단), 김종수(동양사 4, 현 한울 출판사), 김창희(철학 4, 현 동아일보)가 끼여 있을 줄은 나도 몰랐다.

어떻게 해서 주동자가 4학년만 뽑혔을까? 현장에서 울분으로 시작했으면 2, 3학년에서도 다혈질인 사람들이 끼고 전공 학과도 제각각이었겠지만, 어떻게 경찰이 모이기 전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동자가 나타나되 4학년만 4명 내지 5명이 잡혀가게 되었을까? 30년이 지난 이제는 얘기해도 되리라. 사실은 학생운동에 비밀 지하연락망이 있었다.

당시 주동자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최하 3년 내지 5년의 감옥살이를 각오해야 했다. 1, 2학년은 경찰서에 잡혀가도 단순기담자로 분류하여 정학이나 근신 정도를 받았고 3, 4학년 중 주동으로 분류되면 학교 제명과 동시에 구속되게 되었다. 75년 오돌돌(5월 22일 시위를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이후 2, 3년 동안의 경험이 쌓이면서, 후배들의 의식화 기초 조

적인 사회과학 씨클들은 살리고, 보안상 문제가 될 일들은 4학년만 내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대 11대 사회과학 씨클에서 3학년 중 1명을 뽑되 실제로 인문대 사회대와 법대 및 사대까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전공학과를 고려하여 한 명씩 만나는 비밀 조직을 만든 것이다. 나는 78년 3월 쯤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열흘 내지 보름마다 한 번씩 서울 시내 중국집을 돌아가면서 만났다. 반드시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고 미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 뒤에 오되, 약속시간을 5분 이상 어기면 안되는 비밀모임을 했었다. 신기했다. 학생운동이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 있구나.

78년 한 해 동안 3학년인 우리가 만나면 그 다음 날은 학교에서 4학년들이 주동을 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자 다음에는 우리 모임 약속 날짜가 전해져 오면 저절로 후배들과 그 다음 날 12시쯤 학교에서 만날 약속을 해놓게 되었다. ‘...카더라’ 방송이나 화장실 낙서, 벽보로 소문을 내고 과 친구와 서클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모임의 존재는 같은 서클 동료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다. 어떤 이름도 없었다. 만약 그런 모임 존재가 알려지면 민청학련사건과 같은 조직으로 엮이거나 무슨 엄청난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엮일 수 있었다. 실제로 나중에 공안당국은 이 조직의 실제 일부를 포착하여 대규모 조직사건으로 만들어 내려 했다.

나는 81년 1월 8일에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1주일 간 조사받고 1주일 간 지하 유치장에 있는 뒤 어머니 면회만 한 시간 하고 군대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입대한 사람이 2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조직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고 그래서 안개 속의 수풀을 뒤지는 것 같다고 공안당국은 ‘무림(霧林) 조직’이라고 불렀다. “최고의 조직은 조직 없는 조직이다” 그림자 없는 조직, 그래서 우리끼리는 ‘무영(無影)의 조직’ 또는 ‘무영검법’이라고 불렀다.

나는 2학년 초부터 학교 쪽에 ‘찌혀’ 있었다. 77년 4월, 서클 선배였던 오세뵈(언어 74)이 학내시위로 끌려간 후 내 얼굴은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지고 다니는 듯’ 해 보였고 그런 나를 공안당국은 위험하다고 찍은 것이다. 77년 가을 축제 때 소위 ‘사회학과 26동 심포지움 사건’으로 사회학과 3학년들이 대거 잡혀갔다. 나는 그 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건물 안에 있지 않았다. 덕분에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지만, 한 달 동안의 휴교를 마치고 개학하기 1주일 전에 지도교수인 김진균 교수님이 나를 찾았다. 개강을 하면

또 데모를 할 것 같은데 사회학과 2학년 중에서는 나와 신상덕이 위험 1순위란다. 3학년의 김석준, 정대조 선배와 함께 지도교수 ‘특별 지도 여행’을 가란다. 계룡산 가을 단풍을 보며 하는 등산을 처음 해 보았다 김진균, 최홍기 교수님과 인연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중앙정보부 서울대 파견관인 김만복 씨가 가끔씩 집으로 전화를 해 저녁에 술집에서 만났다. <사회대 평론> 편집위원이었던 나에게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도 하고 정보도 얻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악질’이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데모하던 날 그가 당혹한 표정으로 도서관 옆에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는 공안 요원 중에서는 신사였다.

9월 11일 시위의 ‘공범’ 5명 중에서 내 얼굴이 학생들에게 가장 알려져 있었다. 사회대 편집실(편집장 강영철)에서 편집위원을 하면서 조순 학장님과 실개이를 한 일이 있고, 대학본부에서 서클들을 한데 모아 여름 농활을 보내려 할 때 40여 개의 서클 대표들을 모아 상담실(사실상의 학생활동 사찰기관)에 건의하러 가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나 사회대 학생주임에게 요주의 인물로 되어 있었다.

사실 내가 5동 사회대와 인문대 앞 광장에 나와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해도 서울대 학교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사회학과 2, 3, 4 학년들, 경제학과, 정치학과, 무역학과 학생들, 씨클 농업경제학회 동료 등과 서 있으면, 학생들은 오늘 우리 중 또 누가 데모를 하는구나 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문대 <지양> 편집실(편집장 윤언균)과 사대 <청량원> 편집실(편집장 고영목), 법대 <피데스> 편집실(편집장 김 종훈), 자연대 <과학세대> 편집실(편집장 배동문), 가정대 편집실(편집장 정은진)이 공동으로 78년 겨울방학에 수락산으로 6개 대학 연합 엠타를 갔는데, 그때 사회를 내가 보았다. 학생회가 없던 시절, 나는 학생 운동 공개조직의 주도적인 얼굴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공개 조직들과 ‘지하서클장 회의’를 연결하는 역할이었고, 실제로 우리 학번에서 ‘지하서클장 회의’ 하고 75학번과 77학번을 연결하는 역할은 이원주(사대, 현 교보생명)가 맡았다. 그는 사대출신이라 학교 당국과 마찰을 일으킬 일이 적었고 그가 속했던 한국사회연구회는, 해마다 구속이 거듭돼 회원 이름이 알려지는 것조차 위험했으므로 보안 훈련이 가장 철저했다. 공안 쪽에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는 결국 79년 내내 지하에서 4학년들

을 연결하고 3학년들을 관리하다가 마침 터진 10.26사건으로 80년 봄 동안 학생운동을 조직하다가 가을에 졸업하여 군대를 갔다. 80년 12월에 김명인(국문 77학번) 등이 뿌린 학내 유인물 사건이 단서가 되어 그 비밀조직 회원들 중 군인들은 보안사에서, 아직 학생이나 민간인들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2개월밖에 감옥생활을 안 해서 군대에 가야 되었다. 그러나 논산에서 훈련을 마쳤지만 우리 입대 동기 20여명-김용호, 이병훈, 한홍구(국사 2, 현 성공회대) 등인데 정확한 명단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들은 전부 강원도 108 보충대를 거쳐 민통선 이북 부대에 연대마다 한 명씩 떨어져 배치되었다.

경찰 조서에는 나와 신상덕이 데모를 결심하고 김준희, 김낙년, 김진태를 규합하여 데모준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맨 처음 시위를 결심하여 나를 설득한 친구는 농촌법학회의 김준희였다. 나는 농업경제학회를 하고 있었고 향토개혁단 단장이었던 그와는 절친한 사이였다. 그가 먼저 데모를 결심하고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성공하려면 종채를 잡아라 하시더라”는 말에 내가 넘어간 것이다.

나는 학생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고 편집실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데모를 하고 감옥에 갈 결심까지는 하지 못했다. 대학원에 갈 생각이었고, 어찌다 75학번이 없는 우리 씨클의 지하 연락 일을 맡아 여러 가지 학생동원을 했지만 그것은 친구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어차피 대학원에 갈 것이므로 중정이나 학생주임이 나를 주목하면, 진짜 데모 주동을 할 다른 친구들에게 쏠리는 시선을 막아주는, 스크린 플레이 역할정도를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지하모임은 학교관리를 3학년 후배들-우리 씨클은 김지석-에게 맡기고 4학년들은 1대 1의 점조직으로만 만났다. 4학년들에게 미행이 붙었다가 모여 있는 현장이 발각되면 서울대 학생운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1학기에 있을 첫 번째 팀에 내가 빠지는 대신 김진태를 밀어넣고 나서(결국 불발되고 카터 대통령 방한 때는 유인물만 내고 말았지만) 내 속이 편할 리가 없었다.

여름 방학 농촌활동을 농업경제학회와 <사회대 평론> 편집실에서 모두 다녀왔다. 우리 씨클은 농촌 활동이 강했다. 4월에 크리스찬 이카데미 사건으로 장상환 선배(경제학과 69)가 구속되고 노재창(경영학과 73학번)이 농업근대화 연구회에 있다가 무슨 일로인가 도망다니

게 되었다(나중에야 그것이 남민전 사건임을 알았다). 기독교인권회관 청년부(EYC)에 김기영 선배(경영학과 72학번, 현재 개인사업)가 있었지만 그도 얼마 후 쫓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름 농촌활동 이후로 4학년들은 서클 일에서 ‘해방’ 되었다. 이제 ‘갈 길을 가라’는 것이다. 사실 1학기 때부터 ‘치고 나가지 뭐하느냐’는 후배들의 눈빛은 무언의 압력이었다. 김부겸(정치학 76, 현 국회의원)이 2학년 때 데모하다 감옥에 1년 갔다 온 뒤로 씨클의 부담은 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결국 농촌법학회 친구였던 김준희의 설득에 넘어간 우리는 이원주나 다른 팀과의 연락망을 감추기 위해 우리끼리 모든 일을 모의한 것으로 알리바이를 맞추고 경찰서로 들어갔던 것이다.

뜻하지 않은 10.26 사건과 상황변화로 우리는 두 달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나는 80년 봄에는 복학생으로서 서울대 운동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결국 2학기에는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했다. 12월에 시험을 쳤고 사회학과 전공시험은 합격했으나 본부에서 발표하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빠졌다.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은 대학원 진학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희연(사회학 75학번, 현 성공회대), 장상환(경제학, 현 경성대)등은 연세대 대학원으로 진학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81년 1월 7일 청와대 정무 담당이었던 허문도 씨를 찾아가 “왜 대학원 안 붙여 주느냐, 혹시 판단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의 집에서 하루 자며 슬까지 얻어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집으로 들어온 나를 안기부 요원들이 잡으러 온 것이다.

안기부 조사실(처음에는 그들이 가족을 속이느라 한 말대로 제업사 합동수사본부인 줄 알았다)에서 며칠 동안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랐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기영이 형은 내가 약속 장소에 안 가면 알아서 피할 것이다. 대학원 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설마 그 일은 아니겠지.’ 그러나 사흘 밤을 묵비권으로 버틴 후, 옆방에 홍기현(경제학 76, 현 서울대), 이병훈(사회학 78, 현 중앙대), 유현오(사회학 78, 현 SK 텔레콤)가 잡혀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짐작이 갔다. 그 일 때문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수사관이 이원주의 이름을 말했다. 데모를 하지 않고 군대 가있는 사람의 이름이! 씨클 3학년 후배 김지석(철학 77, 현 한겨레신문), 2학년 후배 허현중(정치 78, 현재 농업)까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서울대 씨클은 다 드러났구나. 별수 없이 털어놓고 입대 원서에 지장을 찍고 나니 눈물이 왈칵 솟았다.

### 그 후로 25년 동안

83년 3월에 제대를 했다. 제대 직전 사단 보안대에 불려가 1주일 동안 소위 '녹화사업'이란 것을 받았다. 옛날 일을 다시 적어 내고 이 친구들의 현재 동향을 보고하라는 것이지만 제대 후에 보안사 김 소령에게 전화만 한 번 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제 제대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나 감옥에 다시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직장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다니면서 계속 대학원 시험을 쳤지만 86년 봄에야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86년 봄의 서울대에는 질풍과 노도의 사상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86년 봄부터 90년까지 한국 농어촌 사회연구소 조사연구부장으로 이우재(현재 열린우리당 고문) 소장과 함께 농민운동 전국조직의 이론적 지원을 했다. 사상투쟁의 와중에서 우리의 입장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게 "한국 농업의 반봉건적 소작제도는 농지개혁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우재 선생이 90년에 민중당을 만들었을 때 찬성한 연구소 운영위원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민중당 정책위원까지 했으나 92년 4월의 선거 패배로 당은 해산되었다.

1989과 1990년 동유럽의 격변을 보면서 나는 북한 농업의 참상을 알 것 같았다. 나는 북한 땅에 한 발도 들여놓아 본 적이 없지만, 백두산 밑의 옥수수밭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무너진 희망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다. 새로운 앎이 필요했다. 93년 9월 11일, 우리가 데모한지 14년째 되는 날, 나는 독일 베를린 행 비행기를 탔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독일 통일 문제를 공부했다.

2003년 5월 15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사논문은 한국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성공회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수료하고 이번 학기에는 '독일 통일과 체제 전환'이란 제목의 강의를 맡았다. 지금 쓰고 있는 박사논문 제목은 '통일독일의 민영화와 신탁관리청'이다.

'농민의 아들'로 한국을 떠났다가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세계시민'임을 자각

하고 돌아왔다. 우리 세대의 이름은 무화과 세대가 아닐까? 꽃피지 못했으니 열매는 맺어야 했던 세대.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학생이다. '자기 규제적 조직'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기에, 이 학문적 구도 작업을 아직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